**사도행전 ②**

**이방에 전해진 복음**

하나님의 눈은 이방인들을 향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다. 특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용감하게 나아갔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은 교회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다.

**땅 끝까지 이르는 교회(11:19~21장)**

**안디옥 교회의 탄생(11:19~30)**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대표 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들을 이끄신다(20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에 곧바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교회를 세웠다. 1년 동안 사역한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교인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았다(26절). 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13장).

수리아의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나?

BC 300년경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에 의해 세워진 도시이다. 안디옥은 셀류기아 항에서 32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오론테스 강이 흐르고 있다. 안디옥이라는   
명칭은 셀류쿠스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다. BC 64년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된 후 로마의 속주 수리아의 수도가 되었다.

**박해와 야고보의 순교(12장)**

교회를 향한 박해와 위협은 더 심해졌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다. 특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고  
(2절), 기세를 몰아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3~4절). 하나님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권능을 강하게 드러내셨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을 뿐  
아니라(6~11절), 교회의 대적인 헤롯 왕을 치셨다(20~23절).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생겼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13~14장)**

바울 일행이 성령에 의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되었다(13:1~3).  
그들의 1차 선교 여행으로 이방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며 박해를 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1차 선교 여행 경로

|  |  |  |
| --- | --- | --- |
| 지명 | 본문 | 주요 사건 |
| 수리아의 안디옥 | 13:1~3 | 1차 선교 여행 출발 |
| 실루기아,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 | 13:4~12 |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 |
| 밤빌리아의 버가 | 13:13 |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
| 비시디아의  안디옥 | 13:14~52 | 2주에 걸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 바울의 첫 번째  공적 설교, 이방인들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핍박 |
| 이고니온 | 14:1~5 | 회당에서 복음 전함, 복음의 열매와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의 핍박을 받음 |
| 루스드라 | 14:6~19 |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줌,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추앙됨, 유대인들이 주동해서 바울을 돌로 침 |
| 더베 | 14:20~21 |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음 |
|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밤빌리아의 버가,  앗달리아 | 14:21~25 |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케 함,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제자들을 돌보게 함 |
| 수리아의 안디옥 | 14:26~28 | 1차 선교 여행 마감 |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유는?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전설 때문이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한번은 쓰스와 허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숙소를 구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낡은 오두막에 살던 노부부 빌레몬과 바우시스가 그들을 맞이했고 정성껏 대접했다. 이에 감동한 신들은 그 오두막을   
금 지붕과 대리석 기둥들이 있는 신전으로 변형시켰고, 빌레몬과 바우시스를 그 신전의 사제와 여사제로 임명했다. 그리고 신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의 집을 다 부수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전설에 의거해서 신기한 능력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으로 변장한 신으로 여겼던 것이다.

**예루살렘 공회(15:1~39)**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행이나 외적 표식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 교리가 공적으로 천명된   
것이다. 이로써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리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15:40~18:22)**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굳건히 할 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교 여행이었다. 또한   
교회의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여행이었다.

2차 선교 여행 경로

|  |  |  |
| --- | --- | --- |
| 지명 | 본문 | 주요 사건 |
| 수리아,  길기리아 | 15:41 | 교회들을 굳건히 함 |
| 더베, 루스드라 | 16:1~5 | 디모데를 만나 전도 여행에 동참시킴 |
| 브루기아,  갈라디아 | 16:6 |  |
| 무시아 | 16:7 | 성령께서 바울의 비두니아행을 막으심 |
| 드로아 | 16:8~10 |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향함 |
| 사모드라게,  네압볼리 | 16:11 |  |
| 빌립보 | 16:12~40 | 루디아에게 세례를 줌.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 이 일로 옥에 갇히지만 무사히 풀려남 |
|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 17:1 |  |
| 데살로니가 | 17:1~9 |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임 |
| 베뢰아 | 17:10~15 |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 박해함 |
| 아덴 | 17:16~34 |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함 |
| 고린도 | 18:1~17 |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성공적인 사역을  이룸 |
|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 18:18~22 |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벌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함 |
| 수리아의 안디옥 | 18:22 | 2차 선교 여행 마감 |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18:23~21:14)**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1, 2차 선교 여행의 성격과 사뭇 달랐다.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와 고린도의 두 거점을 중심으로 한 목회 사역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

에베소와 아데미  
에베소는 남쪽에 밀레도, 북쪽에 서머나를 끼고 있는 국제도시이자 큰 항구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BC 11세기에 이오니아 사람들이 정복했고, 현재는 터키   
서해안에 위치한 도시이다. BC 1세기경 이 도시의 인구는 약 30만 명에 달했다.   
시내에는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극장과 목욕탕, 도서관, 아고라(광장)와   
포장도로들이 있었다. 또한 아데미를 섬기던 신전이 있었다. 아데미는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에베소의 수호신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로,   
보통 ‘사냥의 여신’으로 불렸으며, 로마의 신들 중 달의 여신인 ‘디아나’(Diana)에   
해당한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서의 중 하나인 이 웅장한 아테미 신전은 AD 267년  
고트족에 의해 파괴되었다. 바울 당시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길이 104미터,   
폭 30미터, 높이 16미터 이상 되는 원기둥이 100개나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 위용을   
자랑했다.   
  
3 차 선교 여행 경로

|  |  |  |
| --- | --- | --- |
| 지명 | 본문 | 주요 사건 |
| 갈라디아,  브루기아 | 18:23 | 기존 교회를 돌아봄 |
| 에베소 | 18:24~20:1 | 3년간 머물며 사역함, 아데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동하는 소요 사태에 휘말렸으나 무난히 해결됨 |
| 마게도냐 | 20:1~5 | 석달 동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함 |
| 빌립보 | 20:6 | 배로 떠남 |
| 드로아 | 20:6~12 | 바울의 강론 중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림 |
| 앗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 20:13~15 |  |
| 밀레도 | 20:15~38 |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연설을 함 |
| 고스, 로도,  바다라 | 21:1 |  |
| 두로 | 21:3~6 |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함 |
| 돌레마이,  가이사랴 | 21:7~14 | 선지자 아가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 |
| 예루살렘 | 21:15 |  |